『合部金光明經』 字吐口訣의 誤記*

김지오**

要約

『合部金光明經』의 字吐口訣에는 다른 자료들에서 보기 힘든 誤·脫字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이 자료의 口訣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誤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合部金光明經』에 나타난 誤記의 유형은 逆讀點 오류, 懸吐 위치 오류, 吐 漏落, 잘못된 口訣 懸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우기, 덧쓰기, 부호 등을 통해 修訂되어 있다. 또한 『合部金光明經』에 나타난 唯一例(稀貴例)의 상당 부분이 誤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合部金光明經』의 稀貴例를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핵심어 :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 오기(誤記), 수정(修訂), 구결(口訣)

---

* 이 글은 2008년 10월부터 7개월간, 양지원 강독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과 매주 자료를 판독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강독회에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심사위원들께서 지적해준 부분을 토대로 글의 여러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다. 꼼꼼히 읽어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 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1. 서 론

『金光明經』은 신라시대부터 『仁王經』·『法華經』과 함께 '護國三部經'으로 존숭되어 온 經典이다. 유통되어 온 漢譯本으로는 4卷本 『金光明經』·8卷本 『合部金光明經』·10卷本 『金光明最勝王經』이 있다. 이 중 13세기 중반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合部金光明經』 卷3(口訣懸吐本)이 1994년 南權熙·鄭在永 교수에 의해 소개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字吐口訣이 記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合部金光明經』의 史料的 價値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2004년 朴鎭浩 교수에 의해 點吐口訣까지 記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合部金光明經』이 지니는 國語史的 價値는 倍加되었다고 할 수 있다. 現存 資料 중 유일하게 字吐와 點吐가 함께 記入된 『合部金光明經』은 字吐口訣 연구의 擴大뿐만 아니라 點吐口訣 解讀의 질적인 跳躍을 마련해 준 記念碑的인 資料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지니기에 國語史 연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자료가 바로 『合部金光明經』의 口訣이다. 그러나 『合部金光明經』의 구결은 여타의 字吐口訣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未熟한 懸吐들과 誤·脫字들이 대거 나타나기 때문에 자료 이용에 각별한 注意를 요한다. 현재 국어사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釋讀口訣 말뭉치 자료에도 이런 誤·脫字들이 교정 없이 그대로 입력된 채 배포되어 있다. 따라서 『合部金光明經』의 구결을 國語史 연구에 올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誤記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合部金光明經』에 나타나는 誤記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合部金光明經』에 나타난 희귀한 구결이나 唯一例들이 誤記일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2. 誤記의 實態

誤記의 유형은 符號(逆讀點)를 잘못 사용한 경우와 口訣字를 잘못 記入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口訣字를 빠트리거나, 잘못된 口訣字를 懸吐하거나, 또는 구결을 앞·뒤 글자에 잘못 懸吐한 경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合部金光明經』의 誤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방법(지시선과 墨圈點, 지우기와 삽입 등)을 통해 이런 誤記들이 修訂되어 있다는 점이다.[1]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修訂되기 이전, 오류가 처음 발생한 상태를 최대한 복원해 誤記의 전체적인 實態에 대해 살펴본다.

2.1. 逆讀點을 잘못 찍은 경우

漢文은 한국어의 語順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 語順으로 한문을 풀어 읽기 위해서는 한문의 語順을 거슬러 읽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逆讀點(丶)을 사용해 解讀 순서와 방향을 지시하게 되는데, 『合部金光明經』에는 逆讀點을 잘못 사용한 용례들이 나타난다.[2]

(1) 가. (譬)如[支]大(富商主)ㅐ能令[ㅐ尸丶]一切心願乙丶滿足如[支]
<02:10-11>[3]
: (譬) 大富商主ㅐ 能 一切心願乙 滿足 令ㅐ尸 如支
: 비유하면 大富商主가 능히 一切 心願을 만족하게 하는 것같이

---

1) 이런 수정이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수정한 부분이 또 다시 잘못된 경우도 있다.

2) 『合部金光明經』에는 逆讀點이 記入될 자리에 逆讀點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다른 字吐釋讀口訣 자료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생략 현상으로 간주해 誤記의 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예문에서 '[ ]'는 左吐임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나. 於無上法ㅋ十多ㄲ用ㅅトㄱ力功力乙、無明ㄲ爲[ㄲ尸入乙ㅅ分]因、 <08:02-03>

: {於}無上法ㅋ十 多ㄲ 功力乙 用ㅅトㄱ力 無明ㄲ 因{爲}ㄲ尸入乙ㅅ分

: 無上法에 많이 功力을 쓰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며

다.一切弟子衆ㅋ十、飽滿[(ㅅ)ㄲセイㅅ尸入ㅠ]法雨乙、故ノㅅ二口尸分 <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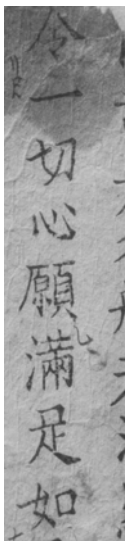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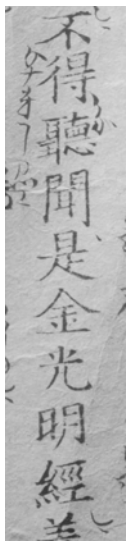
: 一切 弟子衆ㅋ十 法雨乙 飽滿ㅅㄲセイㅅ尸入ㅠ 故ノㅅ二口尸分

: 모든 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라. 不[ハンナ干ㄱ入ㅠ十]得ㅋ亦聽聞、是金光明經乙、 <14:03>

: 得ㅋ亦 是 金光明經乙 聽聞 不ハンナ干ㄱ入ㅠ十

: 능히 이 金光明經을 聽聞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가)	(1나)	(1다)	(1라)
			
02:11	08:02	13:11	14:03

(1가)에서는 '滿足'에 記入되어야 할 逆讀點이 '一切心願乙'에 잘못 記入되어 있다. (1나) '功力乙' 아래에 逆讀點이 잘 記入되어 있어 있기는 하지만 '乙'자 아래와 '無'자 아래에 逆讀點을 찍었다가 지운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어 誤記의 용례에 포함시킨다. 逆讀點을 여러 번 찍었다 지웠다 했던 흔적을 통해 懸吐者가 逆讀點 기입에 큰 혼란을 느꼈던 것으로 짐작된다. (1다)는 逆讀點이 기입될 필요가 없는 위치에 逆讀點이 찍힌 경우이며, (1라)는 左側에 記入되어야 할 逆讀點이 右側에 잘못 기입된 경우이다.

逆讀點은 문맥의 해석과 긴밀한 것으로 懸吐者가 본문을 직접 해석해 가면서 懸吐했다면 잘못되기 힘든 부분이다. 逆讀點 오류를 통해 懸吐者의 해석 능력과 숙련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2. 다른 漢字에 口訣을 잘못 懸吐한 경우

(2) 가. 佛言善男子ㅣ又依[ㅣ]五乙ㆍ法菩薩摩(訶薩成)就[ᄂᆞᄉᆞᄒᆞᄂᆡ]方便勝智波羅蜜乙ㆍ <04:04-05>

: 佛 言 善男子ㅣ 又 五法乙 依ㅣ 菩薩摩訶薩 方便勝智波羅蜜乙 成就ᄂᆞᄉᆞᄒᆞᄂᆡ

: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또 다섯 법을 의거하여 菩薩摩訶薩이 方便勝智波羅蜜을 성취한다.

나. 何以故善男子ㅣ若一切衆ㅐ生未[ㅐ亏]種[一尸ㆍ]善根乙ㆍ <14:01-02>

: 何以故 善男子ㅣ 若 一切 衆生ㅐ 善根乙 種一尸 未ㅐ亏

: 왜냐 하면, 善男子여, 만약 一切 衆生이 善根을 심지 못하고

다. 不[ᄆᆞᄒᆞᆫ]見[尸ㆍ]一切衆生ㅐ可[ᄒᆞᄂᆞᆯ乙ㆍ]成熟ᄉᆞㅐᄂᆞᄒᆞㆍ{者} <14:18-19>

: 一切 衆生ㅐ 成熟ᄉᆞㅐᄂᆞᄒᆞ{可}ᄒᆞᄂᆞᆯ乙{者} 見尸 不ᄆᆞᄒᆞ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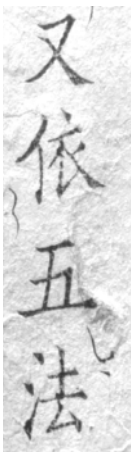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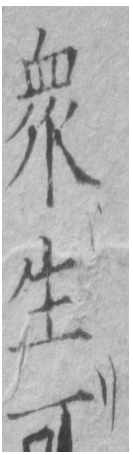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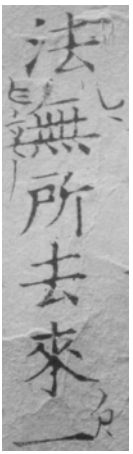
: 一切 衆生이 成熟시킬 만한 이(成熟시킬 만한 一切 衆生)

를 보지 않으며

라. 說[ㅌㅁㅗ]諸行法乙ㆍ[ㅌㅎㅊㅣ]無所去來ㅅ尸ㆍ<14:21>

: 諸 行法乙 說ㅌㅁㅗ 去來ㅅ尸 所 無ㅌㅎㅊㅣ

: 능히 生滅을 나타내나 無生滅을 向하며 여러 行法을 說하나 가거나 오는 바 없다.

(2가)	(2나)	(2다)	(2라)
			
04:04	14:01	14:18	14:21

(2가)는 '法'자에 懸吐되어야 할 '乙ㆍ'이 '五'자에 잘못 懸吐되었다. (2나)에서는 '生'에 懸吐되어야 할 주격조사 'ㅐ'가 '衆'에 잘못 懸吐되었다. 이런 잘못이 (2다)에서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바르게 수정되었지만, 원래는 '衆'에 'ㅐ'를 懸吐했다가 지우고 '生'에 다시 'ㅐ'를 懸吐한 것이다. (2라)에서는 'ㅌㅎㅊㅣ'가 서술어인 '無'에 懸吐되어야 하지만 '法'의 左吐로 잘못 懸吐되었다.

이런 懸吐 위치의 오류 역시 懸吐者가 문맥을 이해하면서 懸吐했다면 틀리기 어려운 것으로 현토의 미숙함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아무리 未熟한 현토자라도 어떻게 '衆生'과 같은 초보적인 어휘조차 한 단위로

인식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合部金光明經』에 기입된 석독구결은 이 경을 해석한 스님이 직접 토를 단 것이 아니고 제자나 다른 사람이 스승이나 이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해석을 들으면서 기입했거나 吐가 달린 다른 자료를 보고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鄭在永(1998:152)의 주장이 주목된다.

(3) 가. 何ᄉᆞᆨ乙等(묵권점){爲}五ㅐㅂ <05:02>
: 何 等ᄉᆞᆨ乙 {爲}五ㅐㅂ
: 어떠한 것들을 다섯이라고 하느냐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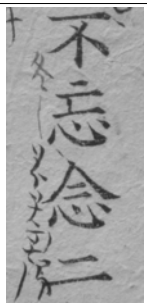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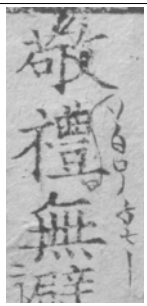
나. 不[多(연결선)ᄉᆞᄀᆞᄂᆞᄒᆞᄀᆞᄂᆡ]忘[丶]念[ノ尸入乙丶]二地乙丶 <09:18>
: 二地乙 念ノ尸入乙 忘 不多ᄉᆞᄀᆞᄂᆞᄒᆞᄀᆞᄂᆡ
: 二地를 念하는 것을 잊지 않음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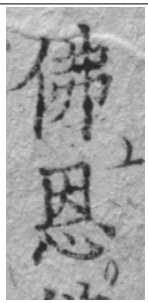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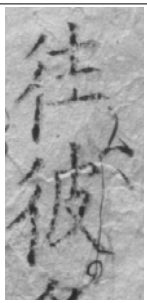
다. 敬ᄉᆞ白ㅁノᄒᆞᄀᆞᄂᆡ禮(묵권점,지시선) <13:04>
: 敬禮ᄉᆞ白ㅁノᄒᆞᄀᆞᄂᆡ
: 敬禮합니다

라. 皆能七成就[ᄉᆞᄀᆞᄉᆞ二ㅁᄀᆞ入ᄆᆞㅗ]一切佛法ㅗ一切佛ㅗ恩(묵권점) <13:21>
: 皆 能七 一切 佛法ㅗ 一切 佛恩ㅗ 成就ᄉᆞᄀᆞᄉᆞ二ㅁᄀᆞ入ᄆᆞㅗ
: 모두 능히 一切 佛法이니 一切 佛恩이니 하는 것을 成就하며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 偏袒右肩右膝着地合掌恭ᄉᆞ白ㅋ赤敬(묵권점)頂ᄆ禮[白ㅁ]佛足乙丶<15:03-04>
: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ᄉᆞ白ㅋ赤 頂ᄆ 佛足乙 禮白ㅁ
: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벗으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合掌恭敬하여서 정수리로 부처의 발에 禮數하고

바. 是會七大衆ㄱ皆悉往[ㅋ]ム丶彼(묵권점,지시선) <15:05>
: 是 會七 大衆ㄱ 皆 悉 彼ム 往ㅋ
: 이 法會의 大衆은 모두 다 거기 가

(3가)	(3나)	(3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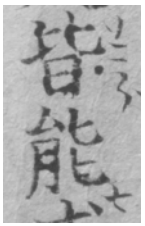
(3라)	(3마)	(3바)
		

(3)의 예들은 (2)와 동일하게 懸吐 위치를 잘못 記入한 예들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묵권점과 지시선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분리하여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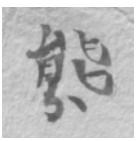
먼저 (3가)의 '何'자에 記入된 'ㅅㄱㄹ'은 본래 '等'자에 記入되어야 한다. (3나)에서는 '不多'에 달려야 할 'ㅅ가ㅅナ方七ㅣ'가 그 아래 글자 '忘'에 잘못 懸吐되어 있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不多'과 'ㅅ가ㅅナ方七ㅣ'를 연결하는 선을 그어 '不多ㅅ가ㅅナ方七ㅣ'을 표시하였다. (3다)에서는 'ㅅ白ㅁノ方七ㅣ'가 '敬'에 記入되었으나 '禮'에 달려야 한다.

(3라)에는 두 군데나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 먼저 문장의 앞부분에 나타난 '皆能七'이다. '能'이 부사로 쓰일 때 華嚴 계통의 자료에서는

‘能ᄉᆞ, 能ᄉᆞᆺ(能ㅣᄉᆞᆺ)’로, 瑜伽 계통의 자료에서는 ‘能ᄀᆞ’로 나타난다. 그런데 『合部金光明經』에서만 유일하게 ‘能ㄴᆡ’라는 형태가 1회 나타나, 새로운 표기법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皆’에 달려야 할 ‘ㄴᆡ’이 ‘能’에 잘못 懸吐된 것이다. ‘皆’가 ‘모두’라는 부사로 사용될 때 ‘皆ㄴᆡ’으로 懸吐되며, 또 21행의 欄上에 ‘能ᄀᆞ’가 記錄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따라서 ‘皆能ㄴᆡ’은 ‘皆ㄴᆡ 能(ᄀᆞ)’의 誤記로, 懸吐 위치를 아래 글자에 잘못 懸吐한 것이다. 또 (3라)의 뒷부분 ‘佛ㅗ’에서도 위치를 잘못 懸吐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佛恩’이 하나의 의미 단위이므로 ‘ㅗ’는 ‘恩’자 뒤에 와야 한다.[4)]



예문(3라)
13장21행



13장 21행
欄上

(3마)는 ‘敬’에 記入되어야 할 ‘ㄴᆞ白ㅋᆞᄭᅩ’이 ‘恭’에 記入되어 있다. (3바)에서는 묵권점과 지시선을 이용해 ‘ㅁᆞᄂᆞ’가 ‘彼’에 記入되어야 함을 표시하고 있다. ‘皆悉往彼’의 서술어 ‘往’과 관련된 吐는 ‘往’의 左側에 기입된 ‘ㅋᆞ’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ㅁᆞᄂᆞ’는 ‘彼’에 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彼ㅁᆞᄂᆞ’에서 ‘ㅁᆞ’는 ‘彼’의 末音添記로 볼 수밖에 없는데 ‘彼ㅁᆞ’라는 添記는 字吐口訣을 통틀어 (3바)에서만 한 번 나타나는 희귀한 용례이다.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점은 (3바) 부분의 點吐에서도 ‘ㅁᆞ’에 해당하는 ‘13(·)’이 찍혀 있어 點

4) (3라)에 해당되는 點吐口訣은 다음과 같다.
皆能[55(·)]成就一切佛法[53(·)]一切佛[45(·.),43(·),53(·)]恩53(·)?,+35(\),55(·)]
: 皆能[ᄀᆞ]成就一切佛法[ㅗ]一切佛[xㅅᆞᄅᆞ,ㅁᆞ,ㅗ]恩[ㅗ,ㄴᆞᄑᆞᄅᆞ,ᄀᆞ]
: 皆(ㄴᆡ) 能ᄀᆞ 一切 佛法ㅗ 一切 佛恩ㅗㄴᆞᄑᆞᄅᆞ 成就(ㄴᆞ)ᄀᆞxㅅᆞᄅᆞㅁᆞㅗ
‘一切佛恩’에서 語節末 懸吐 原則에 의해 모든 點吐는 ‘恩’에 찍혀야 하지만 點吐 위치가 겹쳐서 ‘恩’에 찍혀야 할 點吐 일부가 ‘佛’에 나뉘어 懸吐되었다. 만일 懸吐者가 點吐口訣을 참고했다면 ‘佛’에 나뉘어 찍힌 ‘53(·)’을 보고 ‘恩’에 기입해야 할 ‘ㅗ’를 ‘佛’에 잘못 懸吐했을 수 있다.

吐口訣에서도 역시 '彼ム'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희귀한 용례가 字吐와 點吐에서 일치하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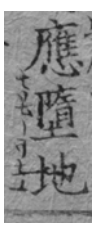
2.3. 口訣字를 漏落시킨 경우

懸吐者의 실수로 구결자가 漏落된 예들도 나타난다.

(4) 가. 左邊ㅗ右邊ㅗノ仝十ン彡應[ヒンム丨ンセㅗ(?)]墮[丶]地(獄)彡十丶
<06:13>
: 左邊ㅗ 右邊ㅗノ仝十ン彡 地(獄)彡十 墮 應ヒンム丨ンセㅗ
: 左邊이니 右邊이니 하는 곳에서 마땅히 地獄에 떨어져야 하는데

나. 見思煩惱ㄲ不[矢ㄱ乙ン彡ㄱ入ㅠ]可[ンㄱ丶]伏ノ古丶故ノ
<07:06>
: 見思 煩惱ㄲ 伏ノ古 可ンㄱ 不矢ㄱ乙ン彡ㄱ入ㅠ 故ノ
: 見·思 煩惱가 조복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까닭으로다.

다. 不退地彡十 生ンニ 師子勝人乙 而ㅠ 得彡ホ 親近ン白彡
<14:06>
: 不退地에 나신/나시어? 師子勝人을 능히 親近(히)하여


(4가) 6장 13행

(4가)는 '墮'의 좌측에 逆讀點만 있고 '應' 구문에 나타나야 하는 '古'이 빠져 있다.[5] 여기는 '墮古應ヒン'가 예상되는 부분으로 '古'이 나타나야 완전한 표기가 된다.

반대로 (4나)에서는 'セ'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伏ノ古可ヒンㄱ'과 같이 懸吐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セ'이 나타나야 완전한 표기가 된다.

(4다)에서는 '生'에 'ンニ'만 현토되어 있어 어말어미가 빠진 것을 알

5) (4가)는 판독이 쉽지 않다. 강독회 2차 판독에서는 '墮(古セㅗ?) 應ヒンム丨'로 판독했고, 3차 강독에서는 '應[ヒンム丨ンセㅗ?]墮[丶]'로 판독했다. 그러나 2차 판독은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3차 판독을 따른다.

수 있다. 이 때 생략된 구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點吐口訣의 '33(:)/ㄴㄱ'을 참고해 '生不退地'가 '師子勝人'을 수식하는 구조라고 본다면 관형형어미가 빠진 표기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동국대역경원의 한글대장경에서는[6] '生不退地'와 '師子勝人而得親近'을 나열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연결어미가 빠진 표기로 볼 수 있다.

(5) 가. 何ᄉᆞᆫㄱ乙者爲五ㅣㅅㅁㅗᄉᆞᆫㅎㅏ尸入ㄱ <02:22>
: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느냐 하면
나. 五者爲[人ㄴ矣ナㄱㅣㅣ]得[ㅋ、]甚深無生法忍乙、 <03:09>
: 五者 甚深 無生法忍乙 得ㅋ{爲}人ㄴ(尸)矣ナㄱㅣㅣ
: 다섯째 甚深無生法忍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다. 是ㄱ 修行[ノ尸ム]方便勝智乙、自在ㅎ尸入ㄱ難ㅋ得ノ干ㄱ乙ㄴㅋㄱ入ㅠ故ㅎ <07:06-07>
: 是ㄱ 方便 勝智乙 修行ノ尸ム 自在ㅎ尸入ㄱ難ㅋ得ノ干ㄱ乙ㄴㅋㄱ入ㅠ故ㅎ
: 이 수행하는 방편의 훌륭한 지혜를 자재로이 얻기 어려우므로
라. 味[ㅣㄴㅋ]禪定樂乙、生[ㅣㄴㅏㄱㄲ]愛著心乙、因[ノㄴㅎ]無明乙、 <07:20>
: 禪定樂乙 味ㅣㄴㅋ 愛著心乙 生ㅣㄴㅏㄱㄲ 無明乙 因ノㄴㅎ
: 禪定樂을 맛들여 愛著心을 내고 있음도 無明을 因하며
마. 微妙淨法ヒ愛ㄴㅏㄱㄲ因[ノㄴ干ㅛ]無明乙、<07:20-07:21>
: 微妙 淨法ヒ 愛ㄴㅏㄱㄲ 無明乙 因ノㄴ干ㅛ 是乙 四地ヒ障ㅗノ干ㅎ
: 微妙 淨法을 愛着함도 無明을 因하는 것이라, 이를 四地의 障碍라고 하며
바. 行法相ㅣ續ㅋ十了了顯現ㄴㅏㄱㄲ無明ㅣ爲[尸入ㄱㄴㅎ]因ㅣ、

6) 역경원 번역은 '물러서지 않는 지위[不退地]가 생기며 사자승인(師子勝人 : 佛)을 친근하여 서로 멀리 여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0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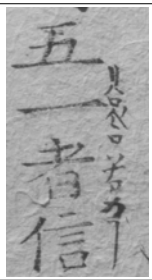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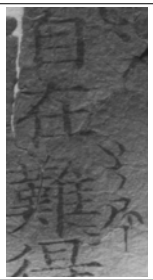
: 行法相ㄲ 續ㇾ十 了了顯現ントㄱカ 無明ㄲ 因ㄲ{爲}尸入ㄱン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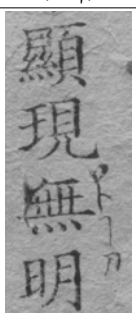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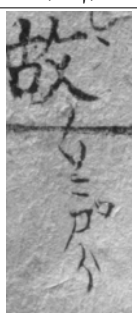
: 行法 相續에 了了 顯現함도 無明이 因이 되며

사. 一切弟子衆ヲ十飽滿[(ゝ)ㄲセィンア入㎜]法雨乙、故ノンニロ尸ダ<13:10>

: 一切 弟子衆ヲ十 法雨乙 飽滿ゝㄲセィンア入㎜ 故ノンニロ尸ダ

: 모든 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5가)	(5나)	(5다)
		

(5라)	(5마)	(5바)	(5사)
			

(5)는 빠진 口訣字를 나중에 보충한 예들이다. (5)에 漏落된 口訣字

가 있었다는 사실은 口訣字를 작은 글씨로 끼워 넣거나 字間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隣接해 있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류의 유형은 본질적으로 (4)와 동일하나 일종의 修訂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분리해 다룬다.

(5가)의 '五'에 懸吐된 口訣字 중 'ノ'는 처음 기입되었을 때는 漏落되었다가 나중에 挿入되었다.

(5나)는 원래 '尸?矢' 정도로 적혀 있던 口訣字를 지우고 'ノ矢'로 校訂해 놓은 곳이다. 처음에는 'ノ'를 빠트렸고, 수정 후에는 '尸'을 빠트렸다. 교정 전·후 모두 口訣字를 漏落시킨 失手를 범했다.

(5다)에서는 '入'가 빠져있다. 처음엔 'ㅎ尸ㄱ'으로 적었다가 후에 '入'를 補充해 넣었다.

(5라·마·바)는 모두 'ノ'를 빠트렸다가 나중에 記入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다. 'ノ'와 앞·뒤 口訣字와의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좁은 것으로 보아 나중에 追加한 듯하다.[7)]

(5사)에서는 'ㅁ'를 漏落시켰다. 처음에는 '故ノノニ尸分'로 懸吐하였다가 'ニ'의 右側 여백을 이용해 'ㅁ'를 보충해 넣었다.

2.4. 잘못된 口訣字를 懸吐한 경우

(6) 가. 善男子ㄱ菩薩八地ミ十ㄱ是相前現ノ尸ム <06:15>
: 善男子ㄱ 菩薩 八地ミ十ㄱ 是 相 前現ノ尸ム
: 선남자여, 菩薩의 八地에서는 이 相이 前現하되
나. 八地乙說尸名下不動地ナノ干ニ分 <07:12>
: 八地乙 說尸 名下 不動地ナノ干ニ分

7) 'ノ' 생략을 誤記로 처리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記入者는 'ノ'를 생략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ノ'를 보충한 사실을 중시해 口訣字 漏落의 誤記로 처리한다.

: 이런 까닭으로 八地를 이름하여 不動地라고 하며

다. 行法相ㅐ續ㅋ十了了顯現ㅅㅏㄱㅏ無明ㅐ爲[ㅍㅅㄱㅅㅅ]因ㅐ、 <07:24>

: 行法相ㅐ 續ㅋ十 了了顯現ㅅㅏㄱㅏ 無明ㅐ 因ㅐ{爲}ㅍㅅㄱㅅㅅ

: 行法 相續에 了了 顯現함도 無明이 因이 되며

라. 是乙六地七障ㅗㅅ不ㅎ <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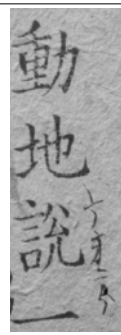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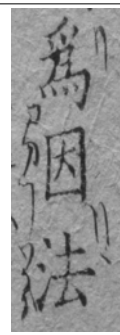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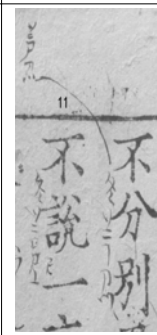
: 是乙 六地七 障ㅗㅅ不ㅎ

: 이를 六地의 障碍라고 하며

마. 淨品ㅗ不淨品ㅗㅅ个十不[ㅎㅅㄴㄱㅅㅁ](欄上 'ㅅㄴㅍㅅㅁ', 지시선)分別[、]界乙、故ㅅ獲[ㄴㅁㄱㅐㅋㅊㅣ]無上淸淨乙、 <13:09-10>

: 淨品ㅗ 不淨品ㅗㅅ个十 界乙 分別 不ㅎㅅㄴㄱㅅㅁ 故ㅅ 無上淸淨乙 獲ㄴㅁㄱㅐㅋㅊㅣ

: 淨品이니 不淨品이니 하는 것에 대하여 境界를 分別하지 않으시는 까닭으로 無上淸淨을 얻으셨습니다.

(6가)	(6나)	(6다)	(6라)	(6마)
				
06:15	07:12	07:25	07:24	13:10

(6가)에서 'ㄱ'으로 懸吐된 것은 잘못이다. 이 부분은 初地부터 10地까지, 각 地에 나타나는 보살의 능력을 부처가 師子相無礙光焰菩薩에게 설하는 부분으로 '善男子ㅋ'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다. 되풀이 되는 동

일 환경에서는 ‘ᄀ’로 懸吐되고 있다는 점, 함께 관찰되는 각필점이 ‘ᄀ’에 대응되는 22(·)로 나타난다는 점, 통사적으로 조사 ‘ㄱ’이 쓰일 환경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에 ‘ㄱ’은 ‘ᄀ’의 잘못된 현토이다.

(6나)에서는 ‘ㅗㅅ丌ㄷ分’의 ‘ㄷ’가 잘못 懸吐되었다. 이 부분은 ‘八地障’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주체높임 ‘ㄷ’가 사용될 통사적 환경도 아니며 반복되는 동일 환경에서도 ‘ㅅ丌分’로 나타나므로 ‘ㄷ’는 빠져야 옳다.

(6다)에서는 ‘ㅐ尸入ㄱㄴ一’의 ‘ㄱ’이 잘못 懸吐되었다. ‘되다’를 나타내는 ‘爲’ 구문의 懸吐는 ‘ㅐ尸入乙ㄴ’로 나타나야 한다. 또 懸吐 양상에 있어서도 ‘ㅐ尸’과 ‘入乙ㄴ’로 분리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인데 여기서는 ‘ㅐ’와 ‘尸入ㄱㄴ’로 분리된 것도 정상적인 현토에서 벗어난 懸吐이다.

(6라)에서는 ‘乙’로 수정되어 있으나 처음에 ‘ㄱ’을 記入했다가 수정한 것이므로 誤記의 예로 다룬다. 의미와 통사, 되풀이되는 동일 환경의 예를 고려하면 보조사 ‘ㄱ’이 아니라 대격조사 ‘乙’이 달려야 할 자리이다.

(6마)에는 ‘ㄴㄷㄱ入ㅁ’로 記入되어 있으나 반복되는 동일 환경의 예와 欄上에 記入된 ‘ㄴㄷ尸入ㅁ’를 고려하면 ‘ㄱ入ㅁ’의 ‘ㄱ’은 ‘尸’의 誤記로 보인다.

3. 稀貴例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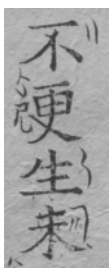
『合部金光明經』에는 일반적인 懸吐 양상에서 벗어난 口訣들이 여럿 나타나는데 이런 特異한 용례들이 文法史 기술에 混線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자료에는 많은 誤記들이 나타나고 있어 特異한 용법을 보이는 口訣들을 전적으로 信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3장에서는 이런 稀貴 용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誤記일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3.1. 동사문 부정의 '-ㄱ 不ㅅㄴ-'

釋讀口訣의 否定法에서 語幹이 形容詞이면 '-ㄱ'이 연결되어 名詞文 否定의 형식을 취하고, 語幹이 動詞이면 '-尸'이 연결되어 動詞文 否定의 형식을 취한다.[8] 그런데 『合部金光明經』에는 이런 否定法 규칙에서 벗어난 용례가 한 예 出現한다.

(1) 來ᄀᆞ十是礙ㅣ不[ㅅㄴ尸乙]更ᄀᆞ生ㄱ、未[ㅅㄴㅌㄱㄱ]得[尸、]不[ㅅ令ㅣ令七]更ᄀᆞ生、智乙、 <08:09>
: 未來ᄀᆞ十 是 礙ㅣ 更ᄀᆞ 生ㄱ 不ㅅㄴ尸乙 更ᄀᆞ 生 不ㅅ令ㅣ令七 智乙 得尸 未ㅅㄴㅌㄱㄱ
: 未來에 이 礙가 다시 생기지 못하는데,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는 智를 얻지 못하는 것도)



(1)8장9행

동사 어간에 '-ㄱ'이 연결되고 여기에 否定詞 '不ㅅㄴ-'가 後行하고 있어 일반적인 否定法 규칙에서 벗어난다. 이런 特異한 예를 두고 釋讀口訣 否定法에 대한 論議가 엇갈리기도 하였다. 김정아(2001)에서는 字吐

8) 이용(2003)에서 제시한 釋讀口訣의 否定法 유형을 옮겨오면 아래와 같다.
- 명사문 부정 형식 (단순 부정 형식)
  Ⅰ 명사구+不矣(非矣/未矣), 非ㅣ矣
  Ⅱ 형용사+-ㄱ+不矣(非矣/未矣)
- 동사문 부정 형식
  Ⅲ ① 단형부정(단순부정) : 不多+동사, 형용사
  Ⅳ ② 장형부정 ㉠ 단순부정 : 동사+-尸+不多(非多)
  ㉡ 능력부정 : 유가사지론 계통 ; 동사+-尸+不ㅅ(未ㅅ), 未ㅣ
  화엄경 계통 ; 동사+-尸+不ノ能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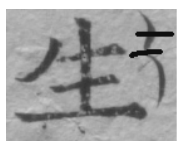
口訣의 否定法에서 형용사 어간이 '-ㄴ'과 결합하는 경향성을 보이긴 하지만 (1)과 같은 예를 통해 동사 부정과 형용사 부정이 항상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이용(2003)에서는 형용사 어간과 동사 어간의 구분이 엄격했던 것으로 보고 (1)에 나타난 '동사+ㄱ 不ㅅㄴ'는 [단순부정]에, '동사+ㄲ 不ㅅㄴ'는 [능력부정]에 쓰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는(이용 2010) 견해를 바꾸어 (1)의 용례가 誤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런 논의들을 볼 때 否定法 논의에서 『合部金光明經』의 특이한 예가 얼마나 큰 고민거리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용(2010)의 지적처럼 이 부분은 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口訣字 'ㄱ'이 기형적으로 크게 쓰여 있고 'ㄱ' 주위가 지저분한 것을 볼 때[9] 懸吐의 정확성에 의심이 간다. 그러므로 『合部金光明經』의 한 예에만 의지해 형용사 어간에도 '-ㄱ 不ㅅ-'가 연결될 수 있는 경향을 주장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10]

---

9) '末'자 주변에 지저분한 흔적은 刷出시 먹이 묻은 것일 수도 있으나 'ㄱ' 가운데의 짧은 역사선(″)은 의도적으로 기입한 부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이용:2010)

10) 또한 誤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點吐口訣을 참고할 수 있다. 만일 (1)의 懸吐가 정확한 것이라면 點吐口訣에서도 '生'에 '33(・)/ㄱ'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동사문의 부정양상에 따라 '15~25(-)/ㄲ'과 '+15(-)/ㅅㄲ, +15~25(-)/ㅅㄲ'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독회의 공동 판독문에 따르면 '生'에 연결되는 點吐가 나타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點吐口訣은 '生ㄱ'의 誤記 판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生'자 주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15'와 '15~25' 위치에 '-' 모양의 角筆이 있는 듯이 보인다.



다소 수평선의 길이가 긴 감이 있고 희미하지만 만일 이것을 '15(-)' 또는 '15~25(-)'으로 인정한다면 이 부분은 '生ㄲ 不ㅅㄴㄲㄹ'로 轉字되므로 일반적인 否定法 懸吐 양상과 부합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字吐口訣에 나타난 '生ㄱ'이 誤記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原本을 직접

3.2. '-ᄋᆞᆷ-'의 '-ᄒᆞᄀᆞᆫ可ᄒᆞᄂᆞᆫ-'

한문의 '可/應' 구문에서는 [가능]과 [당위]의 '-ᄒᆞᄀᆞᆫ-'가 懸吐된다. 이 때 'ᄒᆞᄀᆞᆫ'과 'ᄀᆞᆫ'이 분리되어 아래 (2)과 같이 記入되는 것이 '可/應'구문 懸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 眞義ᄅᆞᆯ 得ᄒᆞᆫ 說ᄒᆞᄀᆞᆫᄃᆡ 思議ᄒᆞᄀᆞᆫ可ᄒᆞᄂᆞᆫᄀᆞ 不ᄆᆞᆺᄒᆞ <구인 11: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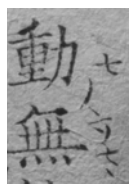
나. 善法ᄋᆡ 最初ᄒᆞ 生ᄒᆞᄀᆞᆫ應ᄒᆞᄂᆞᆫᄀᆞ ᄒᆞᆫᄃᆞ 而ᄃᆡ 嫉悭{有}ᄂᆞᆷᄒᆞ <유가10:16-23>

'-ᄒᆞᄀᆞᆫ可ᄒᆞᄂᆞᆫ-'의 分析과 讀法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讀法의 문제에 있어서는 'ᄒᆞᄀᆞᆫ'를 '可/應'의 全訓讀字로 보아 '-ᄋᆞᆷ-'로 보는 견해와 'ᄂᆞᆫ'을 '可/應'의 末音添記로 보아 '-음짓-/-음맞-'으로 보는 견해로 엇갈린다. 이런 문제에 있어 『合部金光明經』의 한 예가 주목을 받아왔다.

(3) 無[ᄀᆞ]量ᄋᆞ 智慧ᄂᆞᆫ光明ᄋᆞᆫ 十三昧ᄋᆡ 不[ᄆᆞᆺᄇᆞᄉᆞᆫ]可[ᄒᆞᄂᆞᆫᄀᆞ、]傾動ᄒᆞᄀᆞᆫᄂᆞᆫ、 <07:02>

: 量 無(ᄀᆞ) 智慧ᄂᆞᆫ 光明十 三昧ᄋᆡ 傾動ᄒᆞᄀᆞᆫ可ᄒᆞᄂᆞᆫᄀᆞ 不(ᄆᆞᆺ)ᄇᆞᄉᆞᆫ

: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에 대해 삼매가 傾動할 수 없는 것과



(3)7장2행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다면 (3)는 '傾動ᄒᆞᄀᆞᆫ可ᄒᆞᄂᆞᆫᄀᆞ'으로 懸吐되어야

확인하기 전에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誤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도만 지적하고 논의를 보류한다.

하지만 (3)에서는 '𐄀'과 '𐄂'이 연결되어 '傾動'에 함께 懸吐되어 있다. 이렇게 '𐄂'이 '可' 앞에 懸吐되면 '𐄂'이 '可'의 末音添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그래서 『合部金光明經』의 (3)의 용례는 末音添記說을 반박하고 '-𐄀𐄂-'가 '可/應'의 全訓讀 표기라는 주장을 지지하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송신지 2006).

그러나 (3)뿐만 아니라 (3)의 용례 앞·뒤에 나타나는 '可/應'구문의 '𐄀𐄂'가 모두 불완전하게 懸吐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의 예 역시 誤記일 가능성이 높다.

(4) 가. 左邊ㅗ右邊ㅗノ令十ソ彐<u>應[𐄂ソ云ㅣソ𐄂ㅗ?]墮丶</u>地(獄)彐十丶 <06:13>

나. 見思煩惱リ不[矢ㄱ乙ソ彐ㄱ入冂]<u>可[ソㄱ丶]伏ノ𐄀丶</u>故ノ <07:06>

『合部金光明經』에서는 '可/應'구문이 총 6회 출현하는데, (4가)는 이 자료에 출현하는 첫 번째 '𐄀𐄂'의 용례이고 (4나)는 세 번째 용례이다. (4가)에서는 '墮'뒤에 懸吐되어야 할 '𐄀'이 빠져있고, 반대로 (4나)에서는 '𐄂'이 빠져 있다. 즉 (3)의 앞·뒤 용례가 모두 불완전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표기의 불완전성은 點吐口訣의 표기 방식에 이끌린 결과가 아닌가 한다. 點吐口訣에서는 '𐄀'과 '𐄂'이 자료의 계통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기된다. 華嚴 계통의 자료에서는(주본화엄) '𐄀'에 해당하는 '42(丨)'과 '𐄂'에 해당하는 '25(·)'이 개별적으로 표기되는 반면[11] 瑜伽 계통에서는 'ノ𐄀𐄂'를 나타내는 '42(\)'이나 'ナ𐄀𐄂'를 나타내는 '42(-)'이나 'ヒ𐄀𐄂ㅣ'를 나타내는 '51(:)' 등처럼 '𐄀𐄂'가 하나의 符號로 표기

11) 『진본화엄20』의 경우 대부분 '𐄀𐄂' 표기가 생략된다. 만일 나타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에 해당하는 '23(-)'만 표기되고 '𐄂'까지 표기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된다. 『合部金光明經』도 瑜伽 계통의 口訣이므로 點吐에서 'ㅎ'과 'ㄴ'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點吐口訣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3)의 예를 고려해 보면 懸吐者는 '動'자에 記入된 '42(\)'가 'ㅅㅎㄴ'라는 사실에 傾倒되어 'ㅎ'과 'ㄴ'을 이어 쓰는 실수를 범했을 수 있다.

따라서 (3)처럼 'ㅎㄴ'가 연속적으로 현토된 것은 誤記일 가능성이 높은 예이므로 'ㅡㅎ可(應)ㄴㅡ'의 全訓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3.3. '되다'의 '{爲} ㅐ ㅣ ㅅ ㄴ ㅅ ㅡ'

'ㅡㅎ可(應)ㄴㅅㅡ' 구문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ㅐㅣ爲ㅅㄴㅅㅡ'구문이다. 口訣에서 '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字吐는 'ㅐㅣㅅㄴㅅ'로 懸吐되는데, 다른 字吐口訣에서는 'ㅐㅣ'과 'ㅅㄴㅅ'가 '爲'를 경계로 분리되어 懸吐된다.

(5) 가. 王ㅋ 身刀 我ㅋ 臣僕ㅐㅣ{爲}ㅅㄴㅅㅁㅏㅎ立ㅅ去ㄱ
ㅣ十 <화소11:19-20>
나. 佛子ㅐㅣ{爲}ㅅㄴㅅㅌ立 <화엄06:21>
다. 四住ㄴ 開土ㅐㅣ{爲}ㅅㄴㅅㅣㅏㄱㄴ<구인11:21-22>
라. 當ㅅ 知ㅎㅣ 七法ㅐ 所對治ㅐㅣ{爲}ㅅㄴㅅㅜㅐㄱㄱ丁
<유가10:03>


(5라)
유가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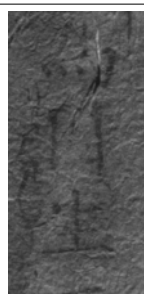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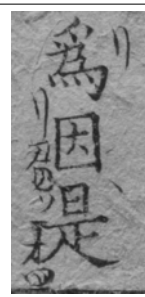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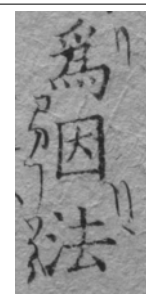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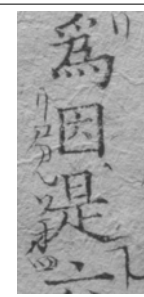
그러나 『合部金光明經』에서는 'ㅐㅣ'과 'ㅅㄴㅅ'가 분리되지 않고 '爲'에 함께 懸吐된다. '爲' 구문은 총 14회 출현하는데, 7장과 8장에서 '무명이 원인이 된다[無明爲因]'라는 반복되는 구문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6) 가. 是ㄱ 生死ㅣㅣ 思惟ㅅㄱㅅㅏㄱㅁ 無明ㅣㅣ 因{爲}ㅣㅣㅁㅅㅅㄴㅅㅁ <07:22>

나. 生死 涅槃ㅋㅓ 不平等ㅎ 思惟ㅅㅏㄱㅁ 無明ㅣㅣ 因{爲}ㅣㅣㅁㅅㅅㄴㅅㅓㅠ <07:23>

다. 了了顯現ㅅㅏㄱㅁ 無明ㅣㅣ 因ㅣㅣ{爲}ㅁㅅㅅㄱㅅㄴㅅㅁ <07:24>

라. {於}心ㅋㅓ 至ㅏㄱㅁ 無明ㅣㅣ 因{爲}ㅣㅣㅁㅅㅅㄴㅅㅓㅠ <07:25>

(6가) ‘ㅣㅣㅁㅅㅅㄴㅅ’가 나타나는 첫 번째 예	(6나) ‘ㅣㅣㅁㅅㅅㄴㅅ’가 나타나는 두 번째 예	(6다) ‘ㅣㅣㅁㅅㅅㄴㅅ’가 나타나는 세 번째 예	(6라) ‘ㅣㅣㅁㅅㅅㄴㅅ’가 나타나는 네 번째 예
			
7장 22행	7장 23행	7장 24행	7장 25행

그런데 초반에 나타나는 ‘爲’ 구문의 口訣字 懸吐들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6)은 ‘{爲}ㅣㅣㅁㅅㅅㄴㅅ’가 나타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인 (6가,나)의 ‘ㅣㅣㅁㅅㅅㄴㅅ’를 보면 자형과 자간 간격이 非正常的임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예인 (6다)에서는 특이하게 ‘ㅣㅣ’를 ‘因’자에 懸吐하고 ‘ㅁㅅㅅㄴㅅ’만 ‘爲’에 분리해 懸吐하여 표기의 一貫性을 잃고 있다. 더욱이 이 부분은 ‘ㅣㅣ{爲}ㅁㅅㅅㄱㅅㄴㅅㅁ’로 되어있는데 ‘ㅁㅅㅅㄱㅅㄴㅅ’에서 ‘ㄱ’은 ‘乙’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네 번째 (6라)부터는 자형이나 자간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爲’ 구문 다음에 나타나는 ‘是ㄱ’을 ‘是乙’로 修訂한 곳에서 懸吐者의 未熟함이 계

속 나타난다. 이런 잘못된 표기들과 未熟함 때문에 『合部金光明經』에 나타나는 '{爲}ㅐ尸入乙ㄴ'의 懸吐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ㅐ尸'과 '入乙ㄴ'를 이어 쓰는 표기가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誤記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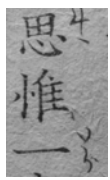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자료의 懸吐者는 다른 字吐口訣처럼 'ㅐ尸'와 '入乙'을 분리하여 懸吐하지 않고 왜 이어서 표기한 것일까?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ㅎ七'와 유사한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華嚴 계통에서는 'ㅐ尸'을 나타내는 '14(!)'와 '入乙'을 나타내는 '41(··)'이 분리되어 懸吐되는 반면, 瑜伽 계통에서는 '(ㅐ)尸入乙'이 하나의 부호인 '+45(/)'로 통합되어 하나로 懸吐된다. '尸入乙'을 '+45(/)'로 記入하는 點吐口訣의 懸吐에 이끌려 'ㅐ尸{爲}入乙ㄴ'를 '{爲}ㅐ尸入乙ㄴ'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12]

3.4. 의도 구문1 : '- 乙 欲ㄴ -'

(7) 가. 菩提心七 功德乙 顯示ㄴ{欲}人ㄴㄷ尸入ㅁ <화엄08:21>
나. 涅槃ㅋ十 入ㄴ{欲}人 思惟ㄴ分 <금광07: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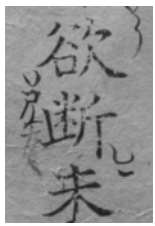
12) 'ㅎ七'를 이어 쓴 현상과 'ㅐ尸入乙ㄴ'을 이어 쓴 현상은 모두 點吐口訣에 傾倒된 동일한 유형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字吐를 기입한 사람이 點吐를 참고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데,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가 나타나 주목된다.


7장21행

一意ㅋ十ㄱ 欲[人]入[ㄴ、]涅槃ㅋ十、思惟ㄴ分 <07:21>
懸吐者는 55 위치에 'ㄴ'를 쓰려고 했다가 'ㄴ'의 한 왼쪽 획만 쓰고 다시 'ㄴ分'를 멀리 떨어뜨려 記入하였다. 'ㄴ'를 기입하려했던 원래 위치에는 '55(·)'이 記入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字吐를 멀리 현토한 것으로 보인다.

釋讀口訣 자료에서는 '欲+V' 구문이 나타날 경우 '欲'을 全訓讀하여 (7)과 같이 'V+ㄴ{欲}ㅅ'로 懸吐한다. 즉 'V하기를 欲한다'가 아니라 'V하고자 한다'로 풀어 읽는 것이 일반적인 懸吐 방식인 것이다.

(8) 一味ㅡㅣ 熟 思惟ㄴㅣ 斷乙 欲ㄴ尸ㅗ 方便乙 得尸 未ㅅㄴㅏㄱㅋㅁ 無明ㅣ 因{爲}ㅣ尸入乙ㄴ干ㅠ <08:01-02>
: 一味로 熟 思惟하여 끊기를 바라지만 方便을 얻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는 것이라


(8)8장1행

그런데 (8)과 같은 예에서는 '欲'을 全訓讀하지 않고 '欲'이 대격을 지배하는 방식[斷乙 欲ㄴ尸ㅗ]으로 懸吐되어 있다. 일반적인 懸吐 경향을 고려하면 '斷ㄴ{欲}ㅅㄴ尸ㅗ'와 같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13] (8)을 誤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방식의 懸吐가 點吐口訣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9)一味[22~32(·)?]熟思惟[22(·)?]欲斷[34(·)?,+53(/)]未得方便[34(·),32~42(·),14(/·)-복?]無明[22~32(·)]爲因[+45(/),+31(/)]
: 一味[ㅣ]熟思惟[ㅋ]欲斷[乙,ㄴ尸ㅗ]未得方便[乙,ㅅㄴㅏㄱㅋㅁ]無明[ㅣ]爲因[尸入乙,ㄴ干ㅠ]
: 一味ㅣ 熟 思惟(ㄴ)ㅋ 斷乙 欲ㄴ尸ㅗ 方便乙 得(尸) 未ㅅㄴㅏㄱㅋㅁ 無明ㅣ 因{爲}(ㅣ)尸入乙ㄴ干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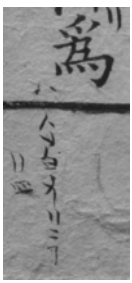
瑜伽 계통의 點吐口訣자료에서도 '欲'구문이 나타나면 'ㅅ'에 해당하

13) 한글언해자료에서도 '欲' 구문을 음독하여 '欲ᄒᆞ-'로 파악한 경우가 많다.

는 '31(·)'을 記入해 '欲'을 '하고자 하다'로 全訓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특이하게 '欲'을 音讀하고 있는데, 이런 희귀한 讀法이 點吐와 字吐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 두 口訣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

3.5. 의도 구문2 : '{爲}ㅅㅅㅅㅡ'

字吐口訣에서 [의도]를 나타낼 때 'ㅡㅅ{欲}ㅅ'뿐만 아니라 'ㅡㅅ{爲}ㅅ'과 'ㅡㅅ{爲欲}ㅅ'로도 나타난다. 그런데 'ㅅㅅ'의 선어말어미 통합 순서에서 특이한 결합을 보이는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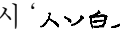
(10) 9장8행

(10) 諸 佛ㅣ 初地菩薩乙 救護ㅅ{爲}ㅅㅅ白ㅅㄱㅣㅣㄷㄱㅣㅣ ㅠ<09:07-08>

'-(ㅅ)ㅅ-'는 '白'을 제외하면 모두 用言 語幹에 연결되는 예만 나타난다.[14] 그런데 (10)에서 '-ㅅ-' 앞에 '-ㅅ-'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다. 點吐口訣에서도 'ㅅ'에 해당하는 點吐는 보이지 않고,[15] 또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나 형태 분석의 측면에서도 'ㅅ'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또 '爲'자의 左側 下段에 'ㅅ'자가 있고 邊欄 아래에 'ㅅㅅ白ㅅㄱㅣㅣㄷㄱㅣㅣㅠ'가 記入되어 있어 한 단위의 口訣吐로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爲'자 左側 下段 가까이에 口訣을 記入하려고 'ㅅ'자를 써넣으려다가 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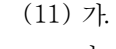
14) '五者 甚深 無生法忍乙 得ㅈ{爲}ㅅㅅ(ㅁ)ㅊㄴㄱㅣㅣㅣ<03:09>'에서 'ㅡㅈㅡ'가 '{爲}ㅅ' 앞에 선행하는 예가 있는데 'ㅈ'는 '得'의 末音添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기서는 어간으로 처리한다.

15) 대응되는 點吐口訣의 구절은 '爲救護初地菩薩[34(·),31(·),22~32(··),32(:)]'이고 이것을 字吐로 전사하면 '爲救護初地菩薩[乙,ㅅ,白ㅅㄱㅣㅣ,ㄷㄱㅣㅣㅠ]'가 된다.

欄의 境界線 때문에 口訣字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邊欄 아래에서부터 다시 ''을 記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는 ''의 誤記일 확률이 높다. 이 때 문제는 처음 記入된 자형이 ''라기 보다는 ''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懸吐者의 필체에서 ''와 ''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므로[16] ''는 ''가 두 번 중복으로 쓰인 誤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6. 기타 사례

이외에도 特異하거나 문제를 보이는 예를 몇 개 더 소개한다.

(11) 가. 三者 一切 難行 猒心乙 生尸 不多 <03:13-14>
나. 何(等爲)五 <03:18>
다. 心得安住 <04:14>
라. 一者 {於}一切 法刂 本來 不生 不滅不有 不無 心 安樂 住<04:12-13>
마. 無漏 無間 無相 思惟 解脫三昧乙 遠刂 修行{故} <07:09-10>
바. 微妙 淨法 愛 無明乙 因 <07:20-07:21>
사. 是乙 八地 障 <08:04>
아. 一味 熟思惟<08:01>
아′. 一切 衆刂生 善根乙 種 未刂 <14:02>

(11가)에서 ''로 표기된 것이 특이하다. 조사 ''가 동명사 어미 ''과 연결될 때 주로 ''로 나타나는데 ''로 표

16) 8장 1행, 8장 5행, 8장 9행, 3장 13행 등에서 나타난다.

기된 것은 字吐口訣에서 (11가)가 유일하다.[17]


(11나)

(11나) '何'의 말음이 표기될 때 일반적으로 '何ㄴㅌ'과 '何ㄴㅎ'가 나타난다. 또 동일한 문맥에서는(3장 12행) '何'에 'ㅌ'이 懸吐되어 있고 'ㄴ'의 記入 위치와 字形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何ㄴ'는 잘못된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11다)는 '(一切 諸法이 最妙하여서 一切 垢가 淸淨함을 觀하여) 마음이 능히 安住하며'로 풀이되는 부분으로 '得'에는 'ㄴ'없이 부사 '得ㅋㅈ'이 와야 한다.

(11라)의 '來ㄴㄱㄹㅁ'에서 'ㄱ'과 '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로 點吐口訣에서는 '來'에 'ㄴㄱㄹㅁ'를 나타내는 '13(\)'이 懸吐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ㄴㄱㄹㅁ'는 'ㄴㄱㅁ'의 오류정도로 볼 수 있다.

(11마)는 '무루(無漏)와 무간(無間)과 무상(無相)을 사유하는 해탈삼매를 멀리 닦아 행하므로'로 해석된다. 즉 '無漏', '無間', '無相'이 대등하게 나열되는 부분이므로 부사 '無間히'가 나타날 부분이 아니다.[18]

(11바)는 '微妙 淨法을 愛着하는 것도 無明을 因하는 것이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淨法'은 '愛'의 대격자리인데 'ㅌ'으로 표기되었다. 이를 목적어적 속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다른 문맥에서는 'ㄹ'로 표기된 점, '愛'자 아래에 'ㄹ'이 懸吐되었다 지워진 점을 고려하면 'ㅌ'은 'ㄹ'의 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11사)에서 'ㄴㄴ'가 두 번 연속하여 나타나는 것은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이 부분은 '如來十地'에 대한 '十地障' 부분으로 똑같은 구문이 10번 반복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ㄴㅋㅎ'로 나타나므

17) 字吐口訣에서는 'ㄴㄹㅋㅅ'로 懸吐되는 데 비해 點吐口訣에서는 'ㄴㅎㅅ[24(\),44(·)]'로 懸吐되어 그 懸吐 양상이 다르다.

18) 이 부분 松津으로 훼손된 부분이라 點吐口訣의 점토 양상(만일 일치한다면 '45(·)/ㅈ'이 예상되는 자리)과 비교할 수 없다.

로 'ᄒᆞ'의 첫 획을 반복해 쓴 것으로 보인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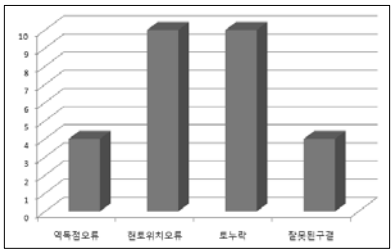
(11아) '一味로 熟 思惟하여' 정도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機能과 讀音을 알 수 없는 'ㅡ'이 懸吐되었다. (11아′)에도 한 예가 더 나타난다. 'ㅡ'은 『瑜伽師地論』 卷20에도 나타나는데 『瑜伽師地論』에서는 모두 '爲'자 다음에서만 'ㅡ'이 사용된다. 남풍현(1999)에서는 'ㅡ'을 '爲'의 '訓', '삼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원래 '三'인 것을 'ㅡ'로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반면 『合部金光明經』에서는 '味'와 '種'과 같은 단어 뒤에 나타나 『瑜伽師地論』의 용례들과도 이질적이므로 해석이 더욱 어렵다.

4.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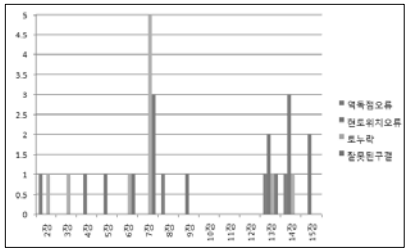
『合部金光明經』 口訣에는 다른 자료들에서 보기 힘든 誤 · 脫字들이 대거 나타나므로 이 자료의 口訣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誤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合部金光明經』에 나타난 誤記의 유형은 逆讀點 오류, 懸吐 위치의 오류, 吐 漏落, 잘못된 口訣 懸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우기, 덧쓰기, 부호 등을 통해 修訂되어 있다.

19) 여기에 해당하는 點吐口訣도 'ㅗ'에 해당하는 '53(·)'과 'ㅅᄒᆞᆫ'에 해당하는 '+55(·.)'으로 나타나므로 'ㅗㅅㅅㄱㅅᄒᆞᆫ' 역시 잘못 懸吐된 예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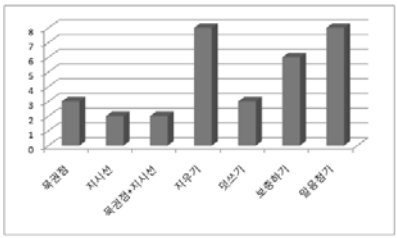
誤記의 類型別 出現 頻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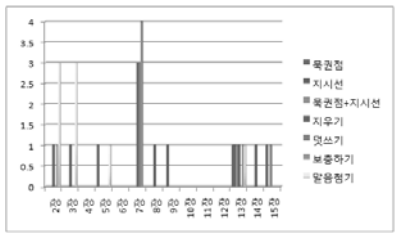
張次別 誤記 出現 實態



修訂의 類型別 出現 頻度



張次別 修訂 出現 實態



이런 誤謬들의 상당 부분은 懸吐者가 문맥을 이해하면서 직접 懸吐했을 때에는 나타나기 힘든 현상들로 未熟한 사람이 어떤 模本을 베끼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들로 판단된다.

또한 『合部金光明經』에 나타난 唯一例(稀貴例)의 상당 부분이 誤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合部金光明經』의 稀貴例를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合部金光明經』의 유일예를 근거로 논의를 뒷받침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장차별 오류 빈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張과 13·14·15張의 誤記 빈도가 다른 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의 口訣 이용에 각별한 注意가 요구된다.

參考文獻

김정아(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김성주(2005), 「석독구결의 사동표현」, 『구결연구』 14.
남권희(1998), 「高麗 口訣本 <(合部)金光明經> 卷3에 관한 書誌的 考察」, 『서지학연구』 15.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남풍현(1976), 「국어 否定法의 발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南豊鉉(1996a), 「高麗時代 釋讀口訣 'ᄐᆞ/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1.
南豊鉉(1996b),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ᄐᆞ의 用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신구문화사).
南豊鉉(1998),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국어학』 28.
南豊鉉(1999), 『『瑜伽師地論』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백두현(1997),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백두현(1998), 「고려본 금광명경의 특이한 형태 몇 가지」,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지.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硏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신지(2006), 「-ᄒᆞ{可/應}ᄂᆞᆫ-'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32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지.
안대현(2008), 「주본 『화엄경』 點吐석독구결의 해독(2)」, 『국어학』 51.
이 용(2003), 「釋讀口訣에 나타난 否定詞의 機能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이 용(2008), 「전기 중세국어의 否定法과 형용사」, 『제2차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어학회.
이 용(2010), 「點吐釋讀口訣 資料의 否定法」, 『구결연구』 24.
이승재(1995),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遷」, 『素谷南豊鉉先生回甲記念論叢-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이현희(2008), 「韓國의 借字表記資料에 보이는 '可, 應' 構文의 讀法 試論」, 『日本語と朝鮮語の對照硏究』Ⅱ.
장경준(2005), 『『瑜伽師地論』 點土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硏究』(國語學叢書 58), 태학사.
장경준(2006), 「석독구결의口訣字 '火'과'ᄉᆞᆫ'에 대하여」, 『國語學』 47.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 『형태론』 3권 1호.
정재영(1998), 「합부금광명경(권3)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否定法 연구」, 『구결연구』7.
조호 사토시(2004), 「석독구결자료의 처격어 연구-명사의 독법에 관하여-」, 『관악어문연구』 29.
황국정(2000), 「석독구결의 두 관형사절에 관하여」, 『구결연구』 6.

[138-930 서울 송파구 잠실4동 파크리오 105동 501호]
E-mail: mugunamu@naver.com
접수일자: 2010. 06. 15.
심사일자: 2010. 06. 28.
게재결정: 2010. 07. 16.

Misprints on 『*Hapbugeumgwangmyeonggyeong*』 Jeomto kugyol

Kim, Zio

『*Hapbugeumgwangmyeonggyeong*』 kugyol has many errors in print compared to the existing seokdokkugyol documents.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misprints frequently found in 『*Hapbugeumgwangmyeonggyeong*』 to quote the resource. Generally, the error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yeogdogjeom(逆讀點) error, adding To(吐) into a wrong place, missing out To(吐), and using wrong To(吐). It is noticeable that most of these were found to be revised by erasing, rewriting and marking. It is believed that a commentator made such mistakes without a full understanding of contexts when copying a original text.

Finally, since there is a quiet possibility that most rare nouns(稀貴語) found in 『*Hapbugeumgwangmyeonggyeong*』 could be misprinted, it is careful to handle them. Also, as it is more often to find the enumerated misprints from 7, 13, 14 and 15 page, it requires a special attention to make use of the resources.

Key words : *Hapbugeumgwangmyeonggyeong*, misprints, kugyol